

미국 랜덤하우스 '20세기 최고의 비소설'

《헨리 아담스의 교육》·외

20세기 최고의 소설 100권의 목록을 발표 한 바 있는 미국출판사 랜덤하우스가 마야 앤젤루, A.S. 바이어트, 스티븐 제이 굴드, 존 크라카우어 등을 위원으로 한 모던라이브리 편집위원회에서 뽑은 20세기 최고의 비소설 100권의 목록을 발표했다.

최고의 비소설로 꼽힌 책은 1907년 처음 책으로 묶은 뒤, 1918년 공개적으로 출판된 헨리 아담스의 《헨리 아담스의 교육(The Education of Henry Adams)》이다.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존 아담스의 후손이며 존 퀸시 아담스의 손자인 헨리 아담스는 이 책에서 남북전쟁에서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동안 미국의 삶과 정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기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곁들여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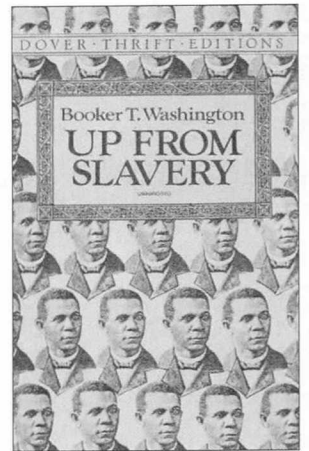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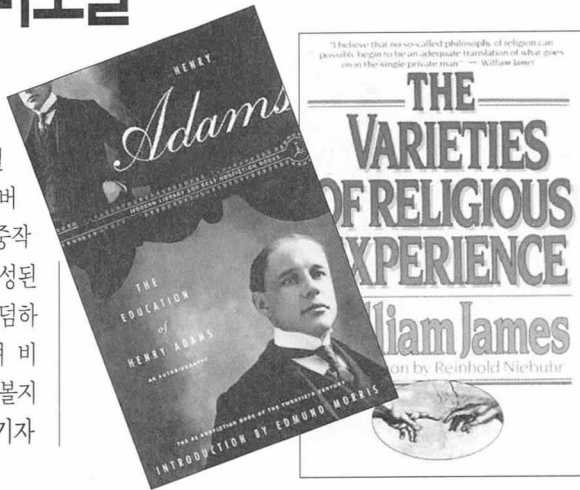
그밖에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부커 T. 워싱턴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Up from Slavery)》,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등의 순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책으로는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 10위, 리처드 라이트의 《검둥이》가 13위, 곰브리치의 《예술과 환영》이 29위, 조지프 니덤의 《중국의 과학기술》이 40위, 갈브레이스의 《풍요한 사회》가 46위,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64위,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69위 등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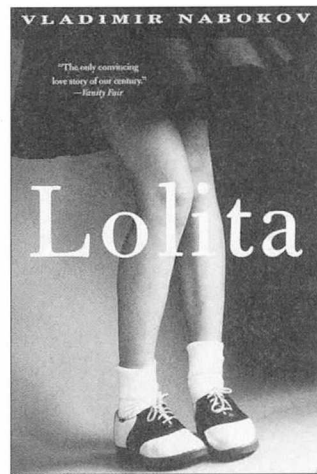
한편 독단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이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은 지난번 20세기 소설 100선에 대한 독자들의 재투표 결과, 아인 란드·톨킨·하퍼 리·로버트 하인라인·스티

븐 킹·H.P. 러브크래프트·미키 스피클레인·더글라스 아담스·레이 브래드버리·로버트 퍼시그·리처드 바크 등 대중작가의 작품이 많이 포함돼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랜덤하우스는 이번에도 독자의 참여를 기다려 비소설 100선을 독자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김연수 기자



《롤리타》 고쳐 쓰면 저작권 침해? 소녀의 시각에서 새로 쓴 《롤리타》 2권



새로 쓴 책 2권의 출간을 앞두고 나보코프의 저작권관리인측에서 저작권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저작권의 범위와 창작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지금 미국에서는 한창이다.

발단은 폭스록출판사가 피아 페라의 《롤리타의 일기(Lolita's Diary)》를 오는 10월 출간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이 책은 원래 파라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문제작 《롤리타》를 여주인공 돌로레스 헤이즈의 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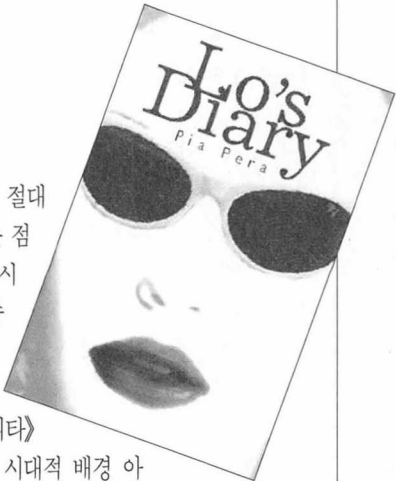
스트라우스앤지루(FSG)에서 파내기로 했으나 나보코프측이 《롤리타》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출간을 포기했다. 그러다 다시 폭스록이 출판을 시도했고, 나보코프측은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출판을 금지시킨 상태. 애당초 《롤리타의 일기》는 페라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려던 폭스록은 판매액의 5%를 PEN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나보코프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크라운출판사 역시 《롤리타》를 떠올리게 하는 낸시 존스의 첫 소설 《몰리(Molly)》를 2000년 3월에 출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더해졌다. 원래 10월에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롤리타의 일기》가 법정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가 없는지 살피느라 연기됐다는 후문. 돌로레스 헤이즈를 떠올리게 하는 돌리 블레이크라는 여주인공의 이름도 교제한 상태다.

폭스록과 나보코프측과의 싸움을 지켜본 테라 크라운출판사는 《몰리》는 새로 쓴 《롤

리타》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중이다. 하지만 《롤리타》와 같은 시대적 배경 아래 어머니가 죽은 뒤 양부와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다 작가 낸시 존스가 나보코프 전공자라는 점에서 출간된다면 나보코프측과의 일전은 피할 수 없을 듯. 낸시 존스는 방황스런 심대를 보낸 자기 조카에게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출간하지 않겠다는 출판사측의 태도로 봐서 그것만은 아닌 듯하다.

어쨌든 표절, 이름만 바꾼 재출간, 짜깁기가 불거져도 쉽게 무마되는 우리로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새로 쓴 책이 저작권 위반이나 새로운 창작이냐는 이런 논쟁이 신기한 것은 사실이다. <김연수>



성장세와 적자폭 사이에 고민 큰 인터넷서점

매출액 332% 증가하는 동안 손실액 370% 증가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반스앤노블·패트브레인·보더즈 4군데의 매출고에 대한 출판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조사결과, 1998년 이들 서점의 총매출액은 6억 8천7백만달러(한화 약 8244억원)로 전년도 대비 3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매출고를 기록한 곳은 아마존(Amazon.com)으로 음반이 주종을 이룬 기타 상품 3천 3백만달러어치를 비롯해 모두 6억 1천만달러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자인 반스앤노블(Barnesandnoble.com)의 경우, 전년도 대비 419%나 성장하며 6천1백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아직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반스앤노블은 아마존과 달리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터넷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부가 나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뒤를 1천만달러의 매출고를 기록한 패트브레인(Fatbrain.com), 4백6십만달러를 기록한 보더즈(Borders.com)가 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증가추세에 발맞춰 적자도 늘어난다는 점. 1998년 이들 4개 인터넷서점의 순손실액은 2억 2천7백5십만달러

로 97년에 비해 370%나 증가했다. 패트브레인을 제외하고는 순손실액의 증가추세는 뚜렷해 반스앤노블의 경우에는 전년도대비 511%나 손실액이 증가해 이 부분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해마다 손실액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판매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형성과 홍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애당초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졌다. ◆